

로만스어의 CL-DOUBLE 구조상의 전치사 A(pe)의 연구*

손 성 태
배재대, 서어학

로만스어 연구에서 이중 목적어(Clitic-Double, 스페인어 용어로는 Clítico-SN doblado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된다) 구조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아직까지 잘 설명되지 못한 채, 언어학의 과제로 남아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이중 목적어(CL-Double)구조에서 하나의 연쇄(cadena)을 구성하는 Clitic과 Double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에서 Juan la quiere a ella는 정문인데 반하여, *Juan quiere a ella는 왜 비문이 되며 또, *Juan la quiere a María는 비문인데 반하여, Juan quiere a María는 왜 정문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관심 분야로는 목적어가 사람과 같은 유기체일 때에만 이중 목적어 구조가 나타나고 사물일 경우에는 왜 나타나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가지 문제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직까지 로만스어 연구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로서, 로만스어 가운데 왜 불어, 이탈리아어 및 포르투갈어에는 이러한 CL(itic)-Double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에서만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겠다. 우리는 이 연구를 위하여 명사구는 Abney(1986)의 제안에 따라서 SN이 아니라 SD라고 보겠으며, Fukui(1986)의 제안에 따라서 SV-주어 가설을 기본적으로 택하겠다.

*) 이 연구는 한국 언어 학회 가을 연구회(1992, 10, 25, 전남대)에서 요약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본 연구에서 우리는 CL-Double구조의 존재는 목적어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무위의 전치사(preposición expletiva)의 존재 여부에 달려 있으며, 이때의 무위 전치사는 Double로써 나타나는 명사구 SD를 격여과로부터 보호해 주며, 이 SD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예측되어 오던 V'하의 논항 위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상위에 있는 비논항 위치에 부가되어 있다고 제안하겠다. 이것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로만스 제언어의 자료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무위 전치사의 존재와 CL-Double구조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밝히겠으며, 제2장에서는 무위 전치사인 스페인어의 a 와 루마니아어의 pe 의 기능을 고찰하겠고, 3장에서는 CL-Double구조를 살펴 보겠다.

1. 로만스어의 자료 분석

앞에서 언급했듯이 로만스어에서 CL-Double구조는 루마니아어와 스페인어에서만 나타나며, 불어,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특히 사람이 대격(acusativo) 목적어일 경우에 앞의 두 언어에서만 전치사 a 와 pe 가 각각 나타남을 다음 자료에서 알 수 있다.

(1) 스페인어

- a. Ellos conocen a mi padre.
*Ellos conocen mi padre.
- b. Ellos compran libros.
*Ellos compran a libros.
- c. Juan la quiere a ella.
Juan la quiere.
*Juan quiere a ella.
- d. María le dio un libro a él.
María le dio un libro.
*María dio un libro a él.

예문(1)의 각 쌍에서, (a)의 두 예문은 사람이 목적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무

위 전치사 a 가 나타나야 하며, 이와 반대로 (b)의 두 예문은 사물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문제의 전치사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우리의 연구 대상인 예문 (c)와 (d)는 각각 대격과 여격 목적어인 사람이 대명사로 실현될 경우에는 동사 앞에 CL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고, Double인 SD는 선택적(opcional)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2) 루마니아어

a. Nu cunoastea pe Dinu.

"No conocía a Dinu"

Nu-l cunoastea pe Dinu.

"No le conocía a Dinu"

*Nu cunoastea Dinu.

"No conocía Dinu"

b. Ma cheama María.

"Me llama María"

Ma cheama María pe mine.

"Me llama María a mí"

*Chemea María pe mine.

"Llama María a mí"

c. Va povestesc totul.

"Le explico todo"

Va povestesc totul voua.

"Le explico todo a Ud."

*Povestesc totul voua.

"Explico todo a Ud."

위의 루마니아어 예문 (a)는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에 스페인어 전치사 a 에 해당하는 전치사 pe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이때의 CL (여기서는 "-l")은 선택적으로 나타난다. 목적어가 대명사 사람인 예문 (b)의 경우에는 Double인 mine 는 선택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CL인 ma는 반드시 사용되어야함을 보여준다. 예문 (c)에서는 사람 목적어인 대명사가 여격(dativo)인 경우로서, 스페

인어 여격 전치사 a에 해당하는 요소가 형태소 '-a' 로 여격 목적어 vou와 결합하여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도 Double인 vuoa 는 생략될 수 있지만, CL인 va 는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에서 사람이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 a 와 pe 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며, 특히 대명사인 경우에는 CL의 사용은 의무적인 반면, Double인 대명사는 선택적(opcional) 요소로 생략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CL-Double 구조를 갖지 않는 다른 세 로만스어의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

(3) 불어

a. *J'aime lui.

"Yo quiero a él"

Je l'aime.

"Yo le quiero"

b. Il aime Marie.

"El quiere a María"

c. Le professeur parle a lui.

"El profesor habla a él"

(4) 이탈리아어

a. Maria ama lui.

"María quiere a él"

b. Giovanni ama se stesso.

"Giovanni quiere a sí mismo"

c. Diamo il libro a lui.

"Damos el libro a él"

(5) 포르투갈어

a. Vi uma moca de olhos azuis.

"Vi a una muchacha de ojos azules"

b. Elas dormiam quando eu as vi.

Elas dormiam quando eu vi-as.

“Ellos dormían cuando les vi”

c. Joao deu o livro a ela.

“Joao dio el libro a ella”

우리는 이 다양한 경험적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객관적 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불어 예문 (3,a)에서 우리는 대격 목적어인 사람이 대명사로 실현이 될 때에는 반드시 CL로 사용 되어야 하며, Double 또는 CL-Double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 (3,b)는 그 목적어가 사람인 경우에도 스페인어의 무위(expletiva) 전치사 a 에 해당하는 요소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며, (3,c)는 여격 목적어 앞에서는 전치사 a가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태리어 자료 역시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불어의 경우처럼 사람이 대격 목적어인 경우에는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CL-Double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여격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a 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포르투갈어의 자료 역시 위와 똑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단지, (5,b)에서 볼 수 있듯이 대격 목적어인 사람이 대명사인 경우에는 Clítico화가 브라질에서는 동사 앞에 되고 포르투갈에서는 동사 뒤에 된다.

결국, 우리는 이 다섯 개의 로만스어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험적 결과로는 첫째, 여격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 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며¹⁾, 둘째, 대

1) 간접 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 는 모든 로만스어에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성격은 동일하지 않는 것 같다. 스페인어 여격 a 는 Demonte(88)과 SON(92)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무위 전치사가 아니다. SON(92)에서는 다음 예문을 통하여 이 전치사가 무위 전치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i) a.*Juan habló a María, de sí misma.

b. Juan le habló a María, de sí misma.

예문(i,a)에서, CL인 le 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용어인 sí misma가 완전 해석 원리(Interpretación completa)에 따라서 LF에서 의미적 해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사인 María에 결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격 전치사 a 가 무위 전치사가 아니므로, 동지표된 María가 대용어를 C-command 하는 것을 막게 되고, 따라서, 대용어는 결속되지 못하여 (i,a)가 비문이 된다. 그러나, CL인 le 가 나타난 (i,b)에서는, 동지표된 CL이 문체의 대용어를 C-command 할 수 있고, 따라서, 결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문이 된다.

격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에서만 무위의 전치사 a 또는 pe가 각각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 두 언어에서 사물이 대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문제의 전치사가 사용되지 않으며, 또 CL-Double구조도 절대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은 무위 전치사의 존재와 CL-Double구조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무위(expletiva) 전치사의 기능

우리는 지금까지 무위 전치사의 존재와 CL-Double구조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경험적 증거를 통하여 살펴 보았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펴 보아야 할 문제는 문제의 전치사가 Double로 나타나는 명사구에 대하여 어떤 기능을 하는가일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로맨스어의 상호 대명사의 구문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6) 스페인어

- a. Juan y María; se; quieren el uno al otro.
- b. Ellos; se; besan el uno al otro.
- c. Ellos; se; miran los unos a los otros.

(7) 루마니아어

- a. Ion si Maria; se; iubesc unul pe altul.
 “Jon y María se quieren uno a otro”
- b. Multi studenti; se; cunosteau unii pe altii.
 “Muchos estudiantes se conocían unos a otros”

한편, 이태리어 여격 전치사 a 는 무위 전치사임을 Giorgi & Longobardi(91, P.40)는 다음의 예로써 증명하고 있다.

(ii) La restituzione di se stessa; a Maria.

여기서, 대용어 se stessa 는 여격 목적어 Maria에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ii)가 정문이 된다. 즉, Maria 가 대용어를 결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a 는 C-command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따라서 이 전치사는 무위(expletiva) 전치사이어야 한다.

예문(6)에서 상호 대명사의 두 구성 요소 el uno와 el otro 사이에 무위 전치사 a 가 사용되어 표면적으로는 el uno P el otro (이것은 3장에서 보여 주듯이 SD+P+SD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P+SD 구조를 이룬다) 구조를 이루고 있고²⁾, 예문(7)에서는 unu와 altu 사이에 무위 전치사 pe가 사용되고 있다. 또 (7,b)에서 볼 수 있듯이 루마니아어에서도 스페인어에서처럼 선행사인 주어(가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키는 복수 명사일 경우에는 상호 대명사가 복수형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문들이 보여 주는 중요한 점은 이 두 언어의 상호 대명사 구조는 CL인 se와 Double인 상호 대명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CL-Double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 보았던 재귀 대명사 구조와 마찬가지로 Double은 생략이 가능한 선택적 요소이다.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세 로만스어의 상호 대명사 구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8) 불어

- a. Jean et Marie s'aiment l'un l'autre.
 "Jean y Marie se quieren el uno al otro"
 b. Beaucoup des étudiants se connussent l'un l'autre.
 "Muchos estudiantes se conocían los unos a los otros"

(9) 이탈리아어

- a. Giovann e Maria si amano l'un l'altro.
 "Giovanni y Mary se quieren el uno al otro"
 b. Molti studenti si conoscevano l'un l'altro.
 "Muchos estudiantes se conocían los unos a los otros"

2) Heim, Lasnik & May(91)에서는, Lebeaux(83)의 제안에 따라 상호 대명사의 두 구성 요소 el uno (each)와 el otro (other)가 LF에서 분리되어, 전자만이 선행사 옆으로 이동한다고 제안하고, 전자를 distributor라고 하고 후자를 reciprocator라고 불렀다. 그러나, Chomsky(86), 양동휘(89, 90)에서는 el uno뿐 아니라 el otro도 LF 이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SON(92)에서는 스페인어의 경험적 자료를 통하여 이동하는 요소는 el uno 뿐이며, 그 성격은 일종의 양화사 이동으로 보았다. 비슷한 생각이 양동휘(91)에서도 나타난다.

(10) 포르투갈어

a. Joao e Maria; amam-se; um ao outro.

“*Joao y Maria se quieren el uno al otro*”

b. Muitos alunos; conheciam-se; um ao outro.

“*Muchos alumnos se conocían los unos a los otros*”

c. *Muitos alunos; conheciam-se; unos aos outros.

예문 (8), (9), (10)이 보여 주는 사실은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의 Double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 세 언어에서는 부사로써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증거는 각 예문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인 선행사가 둘 이상의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구일 때에도 Double에 해당하는 요소가 수 일치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것은 (10,c)가 보여 주듯이 수 일치를 시키면 오히려 비문이 된다는 사실로써 더욱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사실을 경험적 관찰로써 얻게 된다.

(11) a.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

[sr [sv cl+V P+SD]]

b. 불어,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어

[sr [sv cl+V ADV]]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상호 대명사 구문에서 Double에 해당하는 요소가 (11)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에서는 왜 P+SD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 로만스어에서는 왜 부사로써만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제안은, 이 세 언어에서는 무위 전치사 a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격 여과(Fitro de caso)를 어기지 않기 위하여, 문제의 요소가 역사적으로 부사화 되어 사용되었고, 다른 두 언어에서는 무위 전치사가 존재하여 Double을 격 여과로부터 구해준다고 본다. 이러한 생각은 Double에 해당하는 요소가 선행하는 동사로부터 직접 격을 받을 수 있는 내적 논항 위치 즉, V의 자매 교점 위치에 나타날 수 없고, 어떤 부가된 위치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Rizzi(86), Roberge(88)과 F.Soriano(89) 등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 본 논의와는 독립된 원인을 들어, CL은 그 해당 내적 논항 위치에

pro를 인허하며, Double 요소는 보다 상위의 부가어 위치에 나타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제안은 우리의 결론과 잘 부합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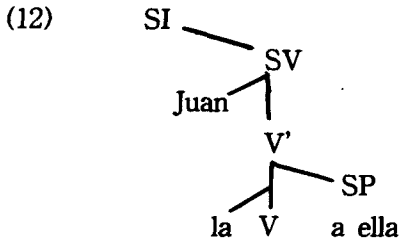
계속해서 우리가 설명해야 할 문제점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의 기본이 되는 “Double 요소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 와 pe 는 무위의 전치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것이다. 이 논의를 하기 위하여 스페인어 예문 (1,c)를 다시 인용하겠다.

1. c. Juan la_i quiere (a ella.)

예문 (1,c)에서, Double인 대명사 ella 앞에 사용된 전치사 a 가 만약 무위(expletive)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발생할 것이다. 무위가 아닌 전치사는 반드시 의미역(Stowell(81)의 용어로는 θ -role)의 할당에 관여할 것이다. 따라서, 첫번째 가능성은 이 전치사가 보어인 ella에 독립적으로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이며, 두번째 가능성은 선행하는 동사와 함께 자기의 보어에 의미역을 할당하는 것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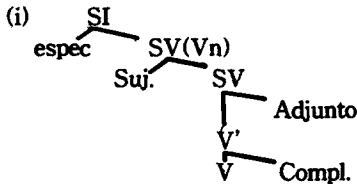
첫번째 가능성은 연쇄 조건(Condición de cadena)에 의하여 배제된다. 즉, 이 조건에 의하면 하나의 연쇄를 이루는 구성소들은 오직 하나의 격과 하나의 의미역을 공유해야만 한다. 그런데 ella가 전치사 a로부터 독립적으로 하나의 의미역을 받는다면, 의미역 기준(Criterio- θ)에 따라서 동사도 자기의 의미역을 반드시 할당해야 하므로, 외적 논항인 주어에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의 의미역은 CL에 부여될 것이다. 그 결과 하나의 연쇄를 이루는 CL과 ella는 두개의 의미역을 가지게 되어 연쇄 조건을 어기게 될 것이고, 따라서 (1,c)는 비문이라고 잘못 결론지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첫번째 가정은 유지될 수 없다. 두번째 가능성은 동사와 함께 의미역을 보어인 ella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 가정은 ella가 동사의 내적 논항 위치에 온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SV-주어 가설하에서 (1,c)는 (12)의 구조를 가질 것이다³⁾.

3) Fukui(86), Fukui & Speas(86)에서는 “한 어휘 핵의 모든 논항들은 그 핵의 최대 투사 내에서 지배 받는 위치에 모두 할당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소위 VP-주어 가설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Contreras(87), Roberts(88), Sportiche(88), Demonte(90)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받아들여 졌다. 그런데 이 가설을 받아들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미세한 차이점이 보인다. 불어의 자료를 통하여 이 설을 지지한 Sportiche(88)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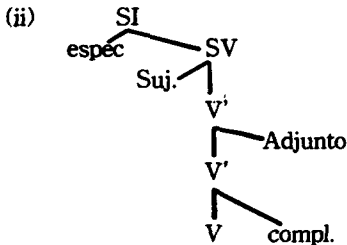


그런데 의미역 기준에 따르면 논항은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예문(1,c)에서 볼 수 있듯이 CL-Double구조에서 Double은 자유롭게 생략이 가능하다. 따라서, 두번째 가정 역시 유지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경우에는 주어가 SV를 관할하는 교점 Vn에 의하여 관할되는 지점에 기저 생성된다고 보았다. Demonte(90)의 경우에는 VP를 관할하는 V의 한 투사 교점인 Vn은 최대 투사 SV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다음의 기저 구조를 제안 했다.



그러나 Contreras(87)과, 특히 Son(92)에서는 구조 (i)를 받아 들이게 되면 부가어의 Wh-이동(CU-이동)의 경우에 장벽과 관련된 이론내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어는 기저에서 단 하나인 SV의 지정어 위치에 오게 되고, 중간 투사 범주인 V'는, Lasnik & Uriagereka(88)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자유롭게 반복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ii)를 제안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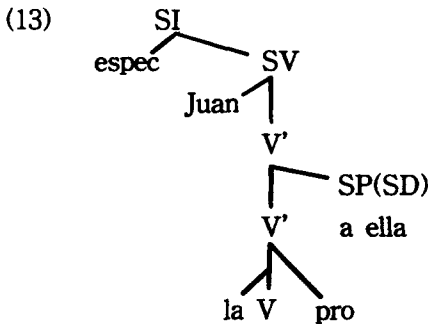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구조(ii)를 택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Double요소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 는 의미역의 할당 능력은 전혀 없는 무위 전치사로서, 오직 자신의 보어에 구조격을 실현해 줌으로써 Double이 격 여파를 여기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CL-Double구문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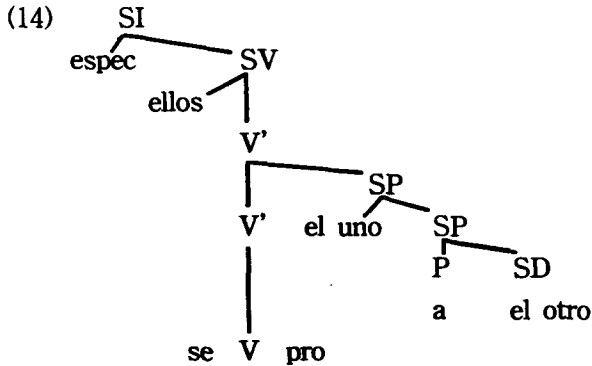
우리는 1장에서 다섯 개의 로만스어 자료에 대한 경험적 관찰을 통하여 사람 대격 목적어 앞에 나타나는 전치사 a 나 pe의 존재와 CL-Double구조의 존재는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2장에서는 이 전치사가 무위(expletiva) 전치사로서 부가어 위치에 오는 Double요소를 격 여파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L-Double구문의 기저 구조가 어떠한가를 간단하게 살펴 보겠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스페인어 예문을 사용할 것이다.

먼저, 예문 (1,c)의 기저 구조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구조 (13)에서 Rizzi(86), Roberge(88), Soriano(89)의 제안에 따라서 CL은 해당 논항 위치에 pro를 인허(legitimar) 및 확인(identificar)해 준다면 위의 구조에서처럼 [la, pro, ella] 가 하나의 연쇄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의미역과는 관련이 없는 무위 전치사는 기저에서 나타나지 않으므로, 부가어 위치의 Double은 SD로 실현되겠지만 S-층위에서는 문제의 전치사가 나타나므로 PP가 된다.

상호 대명사의 CL-Double구문의 경우에도,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의 경우에는 (14)의 기저 구조를 가지게 된다. 대표적으로 (6,b)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주어질 것이다.



그림(14)에서 문체의 Double요소인 [el uno P el otro]는 Belletti(82), Son(92)에서 밝히고 있듯이 [P+SD]를 내용으로 하는 SP 이다. 불연속 구성소인 [el uno...el otro]는 DP로써 S-층위에서는 격 여과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무위 전치사 a가 격 여과로부터 이 요소를 보호한다. 불어, 이탈리아 및 포르투갈어의 경우에는 (11,b)에서 볼 수 있듯이, (14)의 SP 위치에 부사인 Adv.가 오게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로마스어에서 언어학적으로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인 CL-Double구조가 왜 스페인어와 루마니아어에서만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의 결론은 무위(expletiva) 전치사의 존재가 Double요소의 사용을 인허해 주는 것이며, 이 전치사가 없는 언어에서는 예문 (3), (4), (5)에서 처럼 Double요소가 아예 나타나지 못하거나, 예문 (8), (9), (10)에서 처럼 나타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미 부사화되어 나타나므로써 격 여과를 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Double요소는 기저에서 이미 부가어 위치에 온다는 Rizzi(86), Roberge(88) 및 Soriano(89)의 제안을 지지한다.

참고 문헌

- Bosque, I (1985): "Sobre las oraciones recíprocas en español,"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Enero-Junio, PP.59-96
- Burzio, L. (1986):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Dordrecht, Reidel.
- Chomsky, N. (1986):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s,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Demonte, V. (1987): "C-command, prepositions and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18, PP. 147-157
- F.Soriano, Olga M. (1989): "Rección y ligamiento en español: aspectos del parametro del sujeto nulo,"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adrid Autonoma
- Fukui, N. (1986): "A theory of category, projections and its application," Doctoral dissertation, MIT.
- Heim, I., H. Lasnik & R. May (1991): "Reciprocity and plurality," *Linguistic Inquiry* 22, PP.173-192.
- Leabeaux, D. (1984): "Locality and anaphoric binding," *The linguistic review*, PP.343-363.
- Rizzi, L. (1986): "Null objects in italian and theory of pro," *Linguistic Inquiry* 17, PP.501-557
- Roberge, Y. (1988): "Clitic-chains and the definiteness requirement in doubling constructions," *Advances in romance Linguistic*, Foris Publications
- Son, S.T. (1992): "Los pronombres reflexivos y recíprocos,"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Madrid Complutense.
- Son, S.T. (1993): "스페인어 재귀 및 상호 대명사의 결속," to appear in *생성 문법 연구*.
- Stowell, T. (1981): "Origins of phrase structure," Doctoral dissertation, MIT.
- Yang, D.W. (1991): "Korean anaphora and universal grammar," ms. Seoul National Univ.